



노래로 '전법원력' 실천하는  
고시아 포교사

노래도 봉사도  
목표는 포교입니다



#독특한 이름... '원력'을 잊지 않기 위하여

고시아. 그녀는 불자가수회에 소속된 가수다. 그리고 조계종 포교사(제10기)이고 서울 화계사 합창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독특한 이름, 물론 예명이다. 성은 조상님께 물려받은 그대로이고 이름을 바꾸었다. 예불할 때 칠정례(七頂禮)에 나오는 '시아본사(是我本師)'에서 따 왔다. 자신의 서원을 잊지 않기 위해서 택한 이름이다.

그녀의 서원? '포교'라는 두 글자로 압축된다. 노래를 하는 것도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포교를 위함이다. 포교에 인생을 걸었다. 작은 동기가 일생의 원력으로 그녀의 삶을 바꾸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사업을 시작했다. 젊었기에 겁 없이 뛰어들었고 젊었기에 망했다. 그리고 젊었기에 고통과 방황의 터널도 걸었다. 그 어둠속에서 우연히 책 한 권을 읽었다. 법정 스님의 <땅 빈 충만>. 놀랍게도 그 한 권의 책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다.

"남의 탓만 했었어요. 세상 탓을 하면 내가 정당화 되고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앞뒤가 캄캄한데 누구를 찾아가 대화 할 곳도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책을 읽었고,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모든 잘못이 내게 있음에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는 길, 거기서 새 길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으니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수영동에 갔고 '화계사'라는 안내판을 따라 걸어서 갔다.

"그날 명부전에서 나의 아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뒤로 3년간 매일 지정재일에 화계사 명부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업을 실패하며 짊어졌던 부도사건이 해결되고 마음 안쪽에서는 앞으로 이웃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다져지자 그녀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다. 화계사 불교대학에서 공부하고 포교사가 되었으며 불자가 수회가 주관하는 노래자랑을 통해 가수의 길로 입문했다. 그녀에게 있어 포교사와 불자가수라는 '두 개의 캐릭터'는 포교라는 원력을 실천하는 '하나의 길'이 됐다.

#5월, 포교하기 가장 좋은 달

5월엔 기념일이 많다. 부처님오신날이 있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까지. 통틀어 가정의 달인 5월에 고시아 포교사는 하루도 쉴 날이 없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열리는 각종행사와 교도소와 군부대 포교행사와 지역단체에서 마련하는 효도 공연에서 노래하고 봉사하는 것

만으로도 일정이 빠빠하다. 그런데도 그녀는 스스로 소외된 독거노인들을 초청해 무대를 마련하고 어르신들과 어울리는 행사도 기획해 치러냈다.

"좋은 때에 혹시 한 분이라도 소외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잔치를 마련하는데 동료 불자가수들이 많이 도와요. 지역 사회에서도 잊지 않고 선물 꾸러미를 내 주어 감사하구요."

세밀하게 기획하고 부지런히 발품 팔아서 마련하는 무대는 어르신들의 신명나는 어깨춤이 가장 큰 보상이다. 포교의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포교는 어떤 이유에서도 멈출 수 없다. 포교하기 가장 좋은 달 5월, 지난 한 달 그녀는 몹시 바빴다.

#인기가수 되면 포교가 더 잘 될텐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 그녀는 두 번째 음반을 냈다. 2년 전에 낸 첫 번째 음반이 폭삭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전했다. 첫 음반은 불교색이 너무 강했다. 홍보도 거의 하지 않았다. 트로트 가수의 음반인데 '찬불가요' 같다는 소리만 잔뜩 들었다. 이번엔 다르다. 소월의 시 '진달래 꽃'을 자신의 음색에 맞춰고 이종승 시인의 '인사동 부르스' 등을 담은 이번 음반은 트로트라는 장르에 더 충실했다. 원로 작곡가 이동훈 선생이 모든 곡을 작곡했다. 그래도 자신이 작사한 '무상'은 불교냄새를 지우지 못했다. 주변에서는 "그래, 천상 불자가 수일 수밖에 없다"고 핀잔(?)을 주지만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름 기대도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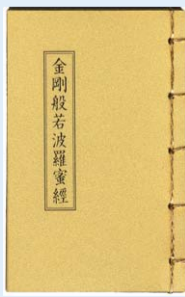
"지금보다 더 인지도 높은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포교하는데도 여러모로 도움 되지 않을까요? 인기 얻으려고 노래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노래도 봉사활동도 다 목적인 포교이니 이왕 하는 노래 더 잘하고 더 인기 있어야죠. 그래야 나머지 일들도 함께 잘 될 거니까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그녀는 노래하는 포교사의 길을 걸어 온 것에 감사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숙제를 충실하게 풀었다고 확신한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더 바쁘게 더 열심히 할 생각이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많다. 보다 효율적으로 공연을 하기 위해 공연전문 기획회사도 만들었다. 또 기회가 주어진 대로 포교 당도 열 생각이다. 늘 노래가 흘러넘치고 소외 받는 사람들이 찾아와 정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공간 말이다.

글=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사진=박재관 기자 jwpark@buddhapia.com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전수경 반아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본원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상불소영  
장량장천  
식식사용도

(불사인연 공력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소병풍  
(관세음보살 본원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가로,세로 74cm



달마액자  
(종) 35 × 50cm  
(대) 42 × 65cm



옴마니반  
메를족자  
80 × 20cm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승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들 온열복대**

완벽요인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들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들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차리기 **금강약들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들 유각불이** 80°C 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작용시 배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작용하고 편안하게 알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 걸림 고혈압, 전립선염**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온열복대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전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시약형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썩음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담을 권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홍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속품(최고60°C)보다 높은 고열(80°C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배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홍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의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안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예영 / 일일금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